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그대 그사람 스페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국토부 대한민국 1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강극장	00 한글날 기획 국토부 대한민국 2부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쾌도난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혜> 40 수목드라마 <비밀>(재)	30 MBC 생활 뉴스 55 567돌 한글날 경축식	10 좋은 아침
10 50 시사특급	00 혼민정음 반포 제567돌 한글날 기념식 55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세종대왕으로 통(通)하다>	50 열매가 있는 풍경 마마도 스페셜(재)	35 아빠! 어디가? 각종특집 스페셜 2	30 한글날 특집 다큐 <글꼴 전쟁>
11 50 뉴스와이드	45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55 바른말 고운말			3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2 10 우리말 겨우기(재)	30 1박2일(재) <친구 따라 양양간다 편>		35 SBS 뉴스 45 2013 프로축구 (수원vs서울)
1 10 팀장평평	05 KBS 결산전 <학교 2013>(재)		40 MBC 뉴스 50 MBC 스포츠 2013 프로야구 중계방송 2차전 <두산vs 넥센>	00 주말극장 <열애>(재)
2 20 직언직설	00 KBS 뉴스 10 한글날 특선 앙코르 <최 후없는 교실 만들기>	50 출발 드림팀 2 <왕중왕전>(재)		35 SBS 뉴스 45 정글의 법칙 in 8countries
3 30 쾌도난마	00 문화 책갈피 사물의 재발견 10 KBS 네트워크 특선 <갈매기 도시>			
4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2013 영화의 바다로 40 영상앨범 선재	40 베란다 쇼 스페셜	
5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0 생생 정보통 1~2부	05 MBC 뉴스 15 불만제로 UP	05 전국TOP10 가요쇼(재)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한글날 특집 <대결 나랏말싸미>	50 일일 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웃년이 주의보>
7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버터민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8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걸투의 베란다쇼	
9 00 스타 패밀리 송	00 특집다큐 대안교과 15년 보고서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비밀>	00 수목미시리즈 <메디컬 팀>	00 드라마 스페셜 <속삭자들>
10 20 주사타(재) ①:30 그대 그 사람(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лай트 ①:00 KBS 뉴스 10 T타임 40 알약톡톡	10 드라마 스페셜 <당신의 누이>	2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0 짝
11 00 스타 패밀리 송		10 스타 여행에 빠지다	40 MBC 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アリー 15 자원봉사 희망 프로젝트 <나무면 행복>	40 나이트라인 ①:10 테마스페셜
12 06:10 세계의 눈 07:00 곤 07:15 마이의 모델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당동영 유치원 08: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08:35 방구대장 뽕뽕이 08:50 모야모야 09:05 코코몽2 09:20 부모 <부모,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듣는다> 10:00 한국기행 10:20 명연의 건강비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정신요의 손맛 높이는 완벽 레시피 - 배추전골>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5 지식채널e 13:10 출가운 수학 EBSMATH 13:20 레이의 우주 대모험 13:30 두키 탐험대 13:45 꼬마 철학자 후궁 14:00 짙나 레미우스 박사님 14:15 장남과 나라의 노디 14:30 척척폭죽 처갓된	15:00 열려라 아바디스 15:15 꼬미 기사 마이크 15:30 바두와 친구들 15:45 두비두비 눈보리 16:00 당동영 유치원(재)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16:30 코코몽2 16:45 모야모야재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17:15 꼬마버스 타요 1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7:45 로보카 폴리 18:00 마이의 모델 18:15 곤	18:30 생방송 보나하니 19:30 두키 탐험대 20:00 EBS 뉴스 20:20 명연의 건강비결 <치아 건강-우이형 교수 입 속 건강-이중호 교수> 20:30 세계테마기행 <캐나다 서부> 21:30 한국기행 21:50 한글날 특집 <위대한 문자, 한글의 재발견> 22:45 극한직업 <가을 갈치잡이 1부> 23:15 세계의 눈 24:05 지식채널e(재) 24:10 한국 영화 특선 <내 사랑 내 곁에>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강 <수학II> 12:3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선 <생명과과학II>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3:20 <적분과 통계> 15:00 인터넷 수능 <문학A> 04:10 <기하와 벡터> 16:00 EBS N제 <생명과 윤리> 05:00 <수학II> 17:00 인터넷 수능 <듣기B> 05:50 탐선 <물리I> 18:00 708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국어A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 19:00 <영어A형> <Basic Grammar> 20:00 <영어B형> 07:30 탐선 <화학I> 21:00 <수학B형> 09:10 <생명과과학I> 22:00 <동아시아> 10:00 <지구과학I> 23:00 <생명과 윤리> 10:50 <물리II> 23:50 지식채널e	07:00 청소년 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15:40 <사회4-2> 07:30 명사의 스승 15:15 꼬미 기사 마이크 16:10 <사회5-2> 08:20 수학의 원리 미테마타 16:40 <사회6-2> 08:30 장수의 비밀 17:10 통통가족 09:00 출가운 수학 EBSMATH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수학> 09:10 출가운 수학 EBSMATH <국어I> 18:00 성공 인생 후반전 09:50 <수학I(상)> 18:30 한 그릇 독학 <역사I> 10:30 <수학I(하)> 18:40 원더풀 싸이언스(5/6) <역사II-1> 11:10 <도덕> 20:20 EBS 문화사 시리즈 <역사II-2> 11:50 중학 2학년 <수학> <제1편 명동백자> 12:30 <역사III> 21:20 등업심공 <역사III> 13:10 중학 3학년 <과학>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역사III-1> 13:5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세계사> 22:40 중학 3학년 <수학3-2> 14:30 <한문> 23:20 <역사III> 15:10 초등 내공 내공 <사회3-2> 24:00 예술의 광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9월 5일 戊申)

子	36년생 적합해야 한다. 48년생 밤심하다가는 이탈하리라. 60년생 두루 살펴보는 것이 좋다. 72년생 불합리한 점을 방치해 둔다면 연쇄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84년생 진흥속 속내 묻힌 욕을 찾아내자. 행운의 숫자 : 86, 89
丑	37년생 객관성을 일탈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49년생 돌과구가 보인다. 61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 73년생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85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3, 36
寅	38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50년생 약간의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 62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74년생 파격적인 변화의 조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61
卯	39년생 믿어 불이다보면 결말이 나게 되어 있느니라. 51년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63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75년생 안정성에 관한 평가 작업을 해줘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56, 05
辰	40년생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52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64년생 시작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자. 76년생 전반적인 구도의 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8, 23
巳	41년생 실효적 방안이 무뎠아라겠다. 53년생 밤심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65년생 모순되거나 불합리하다면 사전에 제거하라. 77년생 황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2, 44

午	42년생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모순이 보인다. 54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관계로 이끌 것이다. 66년생 극기와 자제야말로 최선의 대처이니라. 78년생 소모적인 논쟁은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8, 53
未	43년생 충돌을 피하고 우회하는 것이 좋다. 55년생 유혹에 휘말린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다. 67년생 더딜지언정 뜻하는 바는 이루어지라. 79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건의 실행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40, 77
申	44년생 중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협조자가 생기리라. 56년생 차분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68년생 다시 살펴본다면 빈틈이 있을 것이니라. 80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행운의 숫자 : 19, 79
酉	45년생 인내를 통한 단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겠다. 57년생 활력소가 될 수 있다. 69년생 정확한 정세 판단이야말로 가능성 좌우하게 된다. 81년생 대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의연함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73, 08
戌	46년생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58년생 무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70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다. 82년생 과감하게 진행시켜도 허점이 없고 좋은 결과가 예상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6, 84
亥	47년생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다. 59년생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들어라. 71년생 적절해야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할 해이다. 행운의 숫자 : 85,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스윙으로 표현의 자유 배웠죠”

아이유, 3집 ‘모던 타임즈’로 섹시 변신

“일관성보다 좋은 음악은 모두 담으려고 욕심부렸어요. 이미지도 한층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고요.”

아이유(본명:이지은·20)는 7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열린 3집 ‘모던 타임즈(Modern Times)’ 발매 쇼케이스에서 음악도, 이미지 표현도 자유로워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말처럼 3집에는 스윙, 재즈, 보사노바, 라틴팝, 포크 등 아이돌 가수가 소화하기 부담될 정도로 다양한 장르가 담겼다. 아이유의 자작곡도 두 곡이 실렸다. 유기적인 연결보다 곡마다 특징이 뚜렷해 마치 종합선물세트 같다.

사이니의 종현, 가인 등 또래 가수부터 최백호, 양희은 등 선배 가수들까지 피처링에 참여한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아우러러 한 욕심도 엿보인다. 의도하는 대로 시도해 봤다는 의미가 읽히는 대목들이다.

아이유는 “또래 가수, 선생님들과 작업하며 얻은 게 많았다”며 “특히 양희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고 최백호 선생님은 자주 부르고 노래 부르고 싶은 정도였다. 노래에 진정성을 담으려고 조언해주셔서 진정성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두 분과의 작업은 충격적이었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타이틀곡 ‘분홍신’도 처음 시도하는 장르인 1930년대 빅밴드 사운드의 스윙.

“제게 스윙의 감성이 있을지 고민되고 겁났어요. 하지만 제가 솔(Soul), 알앤비(R&B), 발라드, 댄스 등 지금껏 잘 알아서 부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1930년대 빅밴드 사운드의 재즈, 솔 음악을 차근차근 찾아들었어요. 아직도 스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하.”

음악의 방향에 따라 이미지, 안무, 뮤직비디오도 맥을 같이했다. 1930년대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앨범 제목으로 내

세우고 아이유는 뮤지컬 속 장면처럼 스윙 댄스를 춘다.

“프로듀서가 무성 흑백영화를 많이 보라고 조언해 ‘모던 타임즈’ 등 그 시절 영화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때의 감성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흥미로웠죠.”

그는 데뷔 초기 율동 수준에서 벗어나 춤 실력도 향상됐다. “데뷔 후 이렇게 안무 연습을 열심히 한 건 처음”이라고 웃었다.

이미지도 성숙미를 더했다. 이전 앨범에서 양 갈래 머리에 귀여운 원피스로 소녀스러움을 강조했다면 이번엔 노란 머리에 빨간 입술, 빨간 구두에 검정 원피스를 입고 성숙미가 뚜렷해졌다.

아이유는 “‘분홍신’이 안테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를 모티브로 만든 곡인 만큼 잔혹 동화 속 귀여운 마녀 느낌 아니냐”며 “장난기 많은 표정을 다양하게 보여주겠다”고 웃었다.

그는 9개월간의 작업 과정 동안 자유롭게 노래한 덕에 자신의 앨범을 계속 듣게 된다고 웃었다.

그는 “예능, 라디오 등 하고 싶은 게 많다. 불러주는 대로 갈 것이라며 여한없이 노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유의 3집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는 8일 0시 공개되자마자 버스타커버를 제치고 전 차트 1위를 휩쓸었다. 3집 타이틀곡 ‘분홍신’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멜론, 엠넷닷컴,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싸이월드뮤직, 빅스, 소리바다, 팟캐스트 등 9개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아이유>

유희열, 보아 대신 ‘K팝스타 3’ 합류

새로운 인재 발굴 기대... 내달 중순 방영

SBS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가 세 번째 시즌을 맞아 SM엔터테인먼트의 보아 대신 가수 유희열(사진)을 투입하는 등 대수술을 단행한다.

또 이전 시즌에서 찾지 못한 홍콩·대만·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을 포함한 해외 10개국과 국내 4개 지역에서 오디션을 실시하고, 최종 우승자가 생방송 현장에서 즉시 소속사를 선택하는 등 변화를 줄 예정이다.

8일 오후 양천구 목동에서 열린 ‘K팝스타 3’ 기자간담회에서 연출을 맡은 박성훈 PD는 “시즌 2가 끝나고 나서 보아에게 고민이

있었다. 현역 가수로서 그동안 미뤄놓은 국내의 일정이 많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으로 다른 인재를 발굴한다면 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 최적인자로 유희열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즌 1, 2가 우리나라 3대 대형 연예기획사를 앞세워 차례대로 K팝스타를 발굴하려 했다면, 심어송라이터 유희열의 투입은 아이들에 머무르지 않는 또 다른 ‘색깔’을 기대하게 한다.

박성훈 PD는 유희열을 가리켜 “(양현석·

박진영과는) 배율이 다른 현미경”이라며 “다른 각도에서 스타를 찾아내는 데에 우리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양현석·박진영·유희열 등 세 명의 MC도 이집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양현석은 “이하이·박지민·악동뮤지션은 오히려 유희열과 맞는 뮤지션”이라며 “박진영과 내가 좋게 보는 참가자에 대해 유희열은 또 어떻게 볼까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K팝스타 3’는 다음 달 중순에 전파를 탈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남해 은빛 물결, 갈치잡이



극한직업(EBS·밤 10시45분)=가을이 무르익는 10월,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갈치 잡이 작업에 한창인 어부들이다. 남해 바다 끝자락에 박힌 보석 같은 섬, 거문도는 갈치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문도 갈치 잡이 배는 한 배에 집어들고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낚시줄로 갈치를 잡는 ‘채낚기’ 어업을 이용한다. 한편, 북포에서는 ‘안강망’을 이용한 조업을 떠난다. 안강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가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어구가 조류의 힘에 의해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구로 낚 무게 2에 그물 길이만 100m에 달한다. 화수분처럼 많은 물을 내어주는 바다, 하지만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을 갈치 잡이 현장을 따라가 본다.

글꼴의 새로운 변화



글꼴 전쟁(SBS·오전 10시30분)=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하던 문자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글꼴’이라는 형식을 만나 대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적극적인 20~30대를 중심으로 글꼴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글꼴 시장은 이미 수백억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문자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로마자가 2만 개가 넘는 글꼴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데 비해 한글은 개발된 글꼴이 2000개 남짓으로 빈약하다. 이런 가운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주목받고 있다.

훈민정음 원리를 따라 초성과 종성을 같은 크기로 디자인해 활용해 네모를 벗어난 ‘탈네모 한글꼴’이 등장하며 글꼴의 가능성을 확장한 것.

한글의 역사와 가치



세종대왕으로 통하다(KBS1·오전 10시55분)=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표음문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 발음기호로 한글을 내세우는 언어학자들이 있을 정도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우수한 문화적 가치로 돋보인다.

‘세종대왕으로 통하다’는 휴대전화 문자 입력에서 영어 알파벳과 일어 히라가나, 한글을 비교하는 실험을 보여준다. 각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60대를 대상으로 각자 공통된 뜻을 가진 문자 내용을 더 빨리 입력할 수 있는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했다. 결과는 글자 수가 많은 한글이 영문과 일본보다 빠른 입력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한글 창제의 제자 원리와 관련이 깊다.